



3년 4개월 1100일간 기록한 남원리 해녀

제주영상동인 사진집 발간
54명 마을 해녀 일상 촘촘
“사라질 위기 속 기록 절실”
내일부터 해녀박물관 전시

너나없이 제주해녀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바람에 때때로 그 작업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시절이다.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런 일이 잦아졌다. 그럼에도, 지금이야말로 제주해녀를 사진으로 볼드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제주영상동인(회장 고순환, 지도위원 이창훈)이다.

그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4개월 1100일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해녀들을 기록한 사진집을 묶었다. 이름 그대로 ‘남원리해녀’다.

제주해녀는 2019년 9월 현재 3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60대 이상이 70%가 넘는 등 평균 연령이 70세에 달한다. 반면 40대 이하의 해녀는 모두 합쳐도 50명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10~20년 후에는 제주해녀의 80~90%가 사라질



남원리 해녀들이 물질 작업 전 해녀 체조를 하고있다.

지 모른다.

이같은 인식 아래 제주영상동인 회원들은 책임감으로 카메라를 들고 바다가 있는 마을로 나섰다. 앞서 ‘온평리해녀’(2001), ‘하도리해녀의 삶’(2006)을 냈고 이번에는 남원리로 향했다.

사진집에 수록된 작품은 370여 장에 이른다. 물질과 밭일, 해녀굿 등 마을 해녀들의 일상이 촘촘하다. 작업 초반엔 해녀들에게 “뭇하리 와신고?”라는 소리를 들었지 만 무거운 망사리를 들어주고 바

닷가 청소를 함께하며 “식구처럼” 되어가는 과정 속에 탄생한 사진들이다. 말미엔 제주영상동인 회원들이 직접 남원리 해녀 3명의 생애사를 채록해 실었고 마을 해녀 54명의 얼굴 사진도 일일이 촬영해 수록했다.

이들 사진은 ‘제주 해녀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앞두고 이달 20~27일 해녀박물관에서 전시된다. 11월에는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2차 전시를 갖는다. 문의 010-3691-6286. 전선희기자

상록아코디언봉사단 정기 연주 봉사



상록아코디언봉사단(회장 허창준)은 지난 17일 제주순복음사회복지관에서 연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상록아코디언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정기 연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연말에는 정기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선플 공모전 시상식·선플 페스티벌



선플운동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17일 제주동중학교 체육관에서 선플공모전 시상식 및 선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두 달에 걸쳐 접수된 공모전 작품들 중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장전리새마을도서관 한가위 한마당 잔치



장전리새마을작은도서관(회장 김귀녀)은 지난 13일 장전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한가위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고 기타 연주, 노래 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령1리 마을만들기추진위 도내 견학



광령1리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성관)는 지난 15일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안덕면 서광동리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정



전국 교원양성대학 총장 회의 참석

◇송석연 제주대학교 총장 19일 대구 호텔인터볼고에서 열리는 ‘2019년 제3차 전국 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



서귀포 청소년 진로축제 관계자 격려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19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2019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



긴급방역점검회의 개최

◇고희범 제주시장 18일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해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

서가협회제주지회 제주서예문화축전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회장 오태숙)가 주최하는 ‘2019제주서예문화축전’이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1~3전시실 전관에서 열린다. 제18회 한라서예전람회 수상작 전시, 한국서예작가 만남전, 제주사찰 주련 모음전, 서예작품 영상전 등으로 꾸미는 행사다.

한라서예전람회 입상작은 140여 점이다. 대상작에는 이창기(사진·제주대 공과대학 행정실장)씨가 행초서로 쓴 ‘제강석’(홍유순 선생 시)이 뽑혔다. 시상식은 첫날 오후 2시 2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서예작가 만남전에는 한라서예전람회 출신 초대작가 작품 등 60여점이 펼쳐진다. 관음사, 법성사, 월정사 등 제주사찰 기둥이나 벽에 써붙인 주련 모음전에는 소암 현중화, 감암 송성용, 동강 조수호, 정일 대중사 등 지금은 고인이 된 서단 거목들의 글씨가 나온다. 이들 작품은 동영상으로도 선보인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3시 1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문의 010-9571-7170.

동광초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체험 교육



동광초등학교(학교장 김지혜)는 지난 17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시청각 영상교육, 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체험교육 등을 진행했다.

제주 4농가 ‘제4회 농업마이스터’ 선정

제주지역 4명의 전문농업인이 ‘농업마이스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분야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방식(know-how)을 보유한 전문농업경영인 44명을 ‘제4회 농업마이스터’로 선정, 발표했다. 제주지역 농가는 감귤 품목에서 김성운(서귀포시)씨와 문호진(제주시)씨가 선정됐다. 김씨는 GAP 품질인증과 수형 유지 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문씨는 GAP 품질인증,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등이 핵심노하우로 인정됐다. 한우 품목은 고성영(제주시)씨가 뽑혔다. 고씨는 수정적기포착, 난포 성숙



김성운 문호진 고성영 강길홍

도 감지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친환경과수 분야에서 선정된 강길홍(서귀포시)씨는 미생물 활용 GCM 농법 도입과 미생물 배양 노하우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알림

너는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자부심이야!

출산장려 캠페인

아기의 탄생, 세상의 행복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제주에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나 조부모는 아기(가족)사진과 소정 양식에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시면 누구든 게재 가능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출산가정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 출산캠페인 배너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baby@ihalla.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편집부 ☎750-2251)

이메일 접수가 힘든 분을 위해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제주직항 필리핀 클락 전세기

클락/마닐라 패키지 3박5일

클락 푸낭온천/팍상한폭포/마닐라 인트라무로스

출발일 10월 24일(목) **1인 899,000원**

(성인,아동 동일 / 1인실 사용시 싱글차지 별도로 부과됩니다.)

클락 골프 5일

명문 골프장 54H라운드

출발일 10월 24일(목) **1인 1,250,000원**

(그린피/캐디피/캐디팁/전동카트비(54홀) 포함)

현지 예정 골프장 (18홀씩)
- 썬밸리CC, 코리아CC, 비버리CC
- TEE OFF 시간은 출발 3일전 확정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유류할증료 및 텍스, 호텔료, 식사로, 관광지입장료, 차량료,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선택관광, 봉사료(1인/3만원), 매니팁, VAT(부가세).

파랑새여행사 744-1233 | 늘푸른여행사 726-3344 | 누리여행 758-5400